

‘장마·태풍 영향’ 광주·전남 농경지 928ha 침수

19일~21일 3일동안 광양 백운산 394.5mm 최고
건물 외벽 구조물 낙하·정전 등 피해 잇따라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농경지 928ha가 침수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21일 전남·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와 다나스의 영향으로 여수와 강진·해남·고흥지역의 농경지 928ha가 빗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강진의 한 도로 토사유출, 계곡 고립 50대 여성 등 8명이 구조됐다.

이날 오후 8시께 강진군 병영면 한 지방도로에 토사가 흘러 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당국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52분께 구례군 광의면 한 팬션에 투숙 중이던 A(57·

여씨) 등 8명이 불어난 계곡을 건널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해 소방당국이 구조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물 외벽 구조물 낙하 등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20일 오전 9시46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상가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안전조치 했다.

또 오전 4시47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재개발지역에 설치된 가림막이 무너져 소방당국이 복구 작업을 벌였다.

오전 3시께에는 여수시 용천 요트마리나 육상계류장에 세워져 있던 요트 4척이 강한 바람에 넘어져 파손됐다.

지난 19일 오후 11시43분께 완도항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4.99t급 선박을 고박하려던 선장 A(64)씨가 밧줄 등에 맞아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51분께 여수 돌산읍 군내리 한 도로에 돌이 굴러 떨어져 행정당국이 복구작업을 벌였다.

앞선 오후 7시35분께 여수 소라면 북산리 해안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렸다. 비슷한 시간대 여수 화양면 안포리 편도 1차선 도로에도 토사가 쏟아졌다. 현재는 모든 복구작업이 끝나 통행이 정상화됐다.

정전 피해도 있었다. 19일 완도 지역 109가구는 수 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다.

비바람 때문에 막혔던 빗길과 하늘 길은 이날 오후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풍이 소멸되고 비도 멈추면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장마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기록된 누적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394.5mm를 최고로 거문도 386.5mm, 피아골 304mm, 구례 성산재 300mm, 보성 276.5mm, 고흥 275.1mm, 순천 251.5mm, 여수 232.9



20일 오후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발생한 강풍에 전남 여수시 용천 요트마리나 육상계류장의 요트 수척이 넘어져 일부 파손됐다. 크레인을 이용해 긴급복구작업이 진행됐다.

mm, 광양 219.5mm, 완도 206.4mm, 광주 191.5mm, 순천 251.5mm, 여수 232.9mm. 비는 내륙지역의 경우 대부분 그쳤으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다.

서은홍 기자



기뻐하는 한국경영 여자계영 선수들

이근아(17·경기체고)-정소은(23·서울시수영연맹)-최지원(21)-정유인(25·이상 경북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계영 대표팀은 21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계영 400m 예선에서 3분42초58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 첫 한국 신기록이다. 정소은, 이근아, 최지원이 마지막 주자 정유인과 기뻐하고 있다.

전남도, 올해 상수도시설확충·노후관 교체 2300억 투입

올해 상수도보급율 91.5% 목표 달성 총력

전남도는 올해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663억 원,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721억 원 등 총 23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월 잠정 집계 결과 90.6%로, 통계상 상수도 미보급률은 9.4%로 전남 인구 191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미보급 상태다.

이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수치만으로 통계된 것이며, 통계자료 외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면 전남지역 191만 명 중 98.8%인 189만 명이 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셈이다.

미공급 인구는 1.2%인 약 2만여 명이다. 해당 지역은 외지 섬지역, 외

만지역의 독립가구, 급수가 불가능한 산골 등이다.

전남도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신규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대신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에 약 33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86.6%였던 것이 2016년 87.7%, 2017년 89%, 2018년 90.6%이었으며, 올해 목표는 91.5%이고, 2020년은 92.5%다.

현재 추진 중인 2019년 상수도사

업 규모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5개소에 61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65지구에 848억 원, 고도정수처리사업 4개소에 71억 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3개소에 26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8개소에 102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개소에 721억 원 등 약 2337억 원이다.

정육진 전남도 물환경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이 완료되면 784개 마을 2만 7194세대 5만 5864명이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수돗물을 공급 받게 돼 상수도 보급률은 90.6%에서 약 2.5%로 상승한 93.1%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미공급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을 통해 물 복지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파티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9. 7. 26(금) ~ 8. 1(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요행사 일정 -

- 개막식 : 7월 26일 (금) 오후 8시 (축하공연_ 비와이, 노라조, 제시, 박애리 등)
- 살수(薩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7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6일 (금) ~ 8월 1일 (목) 오후 2시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 7월 27일 (토) ~ 8월 1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樂 파티
 - 7월 26일 / DJ에나, 허조고
 - 7월 27일 / 불런트밴드, 존자, DJ차니
 - 7월 28일 / 박수홍, 손헌수, DJ주주, 미스터광, DJ레드핑크
- 공개방송
 - 목포 MBC : 7월 29일 (월) 송가인, 진시몬, 광민주, 이혜리, 현진우, 소명, 정정아, 광민, 묵비, 김경아, 이청아, 김대나, 임영웅
 - C J 헬로 : 7월 31일 (수) 박규운, 레이디 T, 박서진, 소현아, 태연아, 한민지, 이서진, 임경진, 신아라